

제16편 - 제3신앙촌시대(제3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62회)

제16편  
제3신앙촌시대(제3부)  
一. 나는 상제(上帝) 하나님이다  
1) 나는 땅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상제하나님이다  
2) 감람나무는 상제하나님  
3)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1서4:8)  
二. 삼위일체로 완성되시어 오신 하나님  
1) 또 다른 한 분의 하나님을 증거하심  
2)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성하러 오신 영모님

제3신앙촌시대(제3부)

一. 나는 상제(上帝)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영모님은 당신이 지키지도 못할 사랑의 하나님의 설교를 하시고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참 후에야 영모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게 되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은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었다. 당신이 낳아 키운 구세주에 대한 증거였다. 전도관 교인들은 영모님의 말씀이 다 영모님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당신이 낳아 키운 구세주에 대한 증거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의 설명도 역시 영모님이 키운 구세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전도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승리제단에 와서 조희성님을 대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놀랐다. 항상 미소가 용안에서 떠나지를 않으시고 교인들에게 한 번도 큰소리로 야단을 치시거나 꾸중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무식한 교인들 중에는 조희성 구세주님을 너무 가볍게 보고 버릇없이 구는 절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절 얼굴을 붉히시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웃음 띠 모습으로 대하시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어떤 보살이 조희성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시는 것을 맞추어

서 달려가서는 “제가 급히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조희성님은 “그래? 나도 오늘 돈이 없는데”라고 하시더니 여전히 미소 지으며는 모습으로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을 열어보니 6만원이 있었다. 조희성님은 이것밖에 없는데 하시면서 6만원을 다 꺼내 주시고는 떠나셨다. 물론 그 보살은 많은 교인들을 통해서 집중 성토를 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이러한 조희성님의 성품은 일부터 하려고 해서 될 수 없는, 그렇게 성품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다.

필자는 순간 영모님이 그토록 정성을 들여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분을 두고 증거하신 것이라고 깨달았던 것이다. 정말 그러했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실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이다. 필자가 십 여년 간 그분을 대하여 오면서 봐온 그분의 모습은 한결 같은 미소 띠 인자하신 그런 모습이셨다. 영모님이 그토록 정성을 들여 증거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바로 역곡에 승리제단을 세우시고 완성의 역사를 하실 조희성님을 두고 증거하신 것이었던 것이다.

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시키려 오신 하나님(구세주 출현)

1) 또 다른 한 분의 하나님을 증거 하심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영모님은 당신을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천상천하에 당신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직 당신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영모님은 무슨 영문인지 또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사명을 완수하신 영모님

이다. 교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또 다른 하나님이라니... 이와 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6000년 동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정과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두 씨인 아담과 해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뜻이었다. 영모님은 삼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삼수의 원리가 하나님 아담 해와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가 꼭 같은 것이다. 어디도 틀린 것이 없었다. 머리카락 수도 같은 것이다(82, 3, 8, 신앙신보)” 태초에 세 씨가 있었는데 두 씨를 마귀에게 빼앗겨 6000년 간 당신의 자녀들이 사망 아래 다스림을 받아 슬픔과 탄식,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 속에 사라져 갔던 것이다. 이러한 인생을 보시고 6000년 동안 탄식을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두 씨를 잃은 순간 창조 능력과 전지전능의 능력을 상실하여 죽어가

는 인생을 보고도 속수무책이었으며 60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하나님 홀로 마귀와 싸워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키워왔고 마귀의 힘의 증을 능가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대장마귀 예수의 계락을 알아내어 마귀를 박멸시킬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6000년간 마귀 속에서 승리하여 출현하는 이긴자 구세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강한 피를 다듬어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긴자의 두 씨인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야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사망의 신에게 잡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류를 영원토록 사는 영생불사의 존재로 이루어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모님은 잃어버려던 아담과 해와 두 씨를 찾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전도관 역사는 이러한 두 씨를 찾는 역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긴자의 출현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끝장인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지옥 가(80년11월 영모님말씀)”라고 하시면서 우셨던 것이다. 잃었던 아담과 해와가 승리하여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도 지옥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가 오는고로 영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삼수의 원리 속에서 한 씨만으로는 간교하고 힘이 있는 마귀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고로 아담과 해와가 승리하여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류 전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상제 하나님은 지금 당신 말고 다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다.

“내가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을 석방시켜 모처에 모셔 놔다. 그리고 마귀의 눈을 살짝 속이고 내가 그 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리고 의인 하나 만드는 데 피를 20번 토해야 했다(80년 소비조합회의)”

“밥도 먹고 배설도 하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내가 고급화장지를 사다 주었다.(82, 3, 1, 축복일)”

상제 하나님인 영모님께서 그토록 해산의 수고 끝에 임태하시어 영적으로 낳으신 구세주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계신 것이다. “나는 그토록 고생해서 하나님을 건지시기 위해서 고생한 것이다”라고 하신다. 해산의 수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긴자가 안 나오면 나도 지옥이야”라고 비통하게 말씀하시던 영모

님은 결국 성공을 거두신 것이다. 영모님은 “밥도 먹고 배설도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신다.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이다. 고로 마귀의 종이 된 하나님 속에서 승리하시어 출현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2)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시키려 오신 영모님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루기는 이룬다. 감람나무가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마귀는 박살나게 되어 있다(82, 1, 11, 신앙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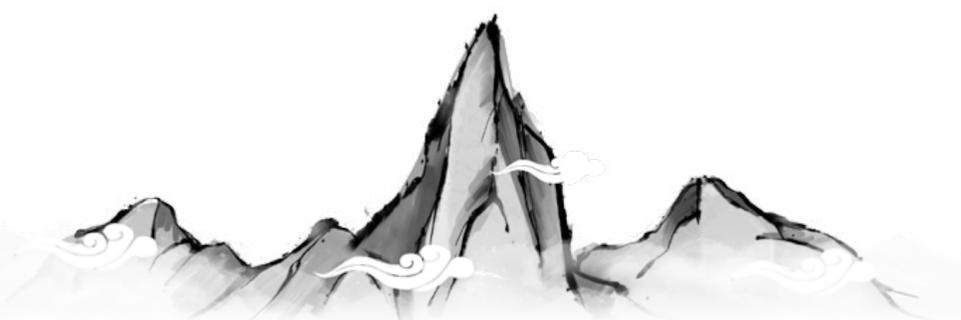
“이긴자가 안 나오면 나도 지옥이야(80.11)”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던 영모님의 이 말씀에는 자신만만함이 들어 있다. 감람나무가 나온 이상 꼭 이루어 마귀를 박살내게 되어 있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다.

지금까지 영모님은 천기 속에 가려진 영적 사정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사실 대로 말씀하실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계셨다. 그래서 영모님은 귀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교인들은 영모님의 영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무지함 때문에 영모님께서 지금까지 가리고 있는 실체를 떼가 되어서 밝히시니까 다들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영모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영모님은 줄곧 쏘를 해 온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쏘를 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 쏘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81.12.28, 축복일)”\*

정도령이 수원나그네요 청림도사이니라



부평 소사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감추어둔 곳이니라. 삼신이 계시는 성산(聖山)은 어디인가? 동해(東海=동쪽 해우반도=동반도)의 삼신산(三神山)역시 이 곳이니라.

甘露如雨露 聖靈如雲霧 小弓武弓生殺權 小弓武弓生殺權 소공무궁생살권 天下一氣用乙化 천하일기용화 東走者死西入生 동주자사서입생 青春男女老少間 青春男女老少間 청춘남녀노소간 虛火亂動節不知 허화난동절부지 天地震動舞樂聲 천지진동무악성 生死判端仰天視 생사판단양천축 山海鬼隱藏世 신마해귀은장세 陽來陰退肇乙知 양래음퇴초을지 六角八人天火降 육각팔인천화강 善惡分別仔細知 선악분별자세지 苦待春風訪道者 고대춘풍방도자 肇乙矢口天乙來 초을사구천을래 山水前路豫言中 산수전로예언중 四乙之中三聖出 사을지중삼성출

복숭아 꽃 피는 무릉도원은 신선이 사는 곳이요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니라. 정도령이 계시는 곳은 소사(素砂=흰돌=白石)땅이요

감로가 비처럼 내리는 것이 해인의 이치인데 감로해인이 작은 활 같아도 마귀를 쏘아 죽이는 무궁조화가 있는 활이니 생살권(生殺權)을 가지고 있느니라. 천하의 하나님의 기운이 모여 마귀를 이기신 백십승(백궁을을) 감로 이슬성신이 되셨느니라. 동방 한국을 떠나 달아나면 죽고 서방 사람이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면 사느니라.

청춘남녀 노소간에 허화난동(虛火亂動)하는 자는 철부지라 천지가 크게 흔들리며 움직이니 한편으로는 좋아서 기쁜 나머지 춤을 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성통곡하는데 생사(生死)가 갈리는 이때에는 하늘을 우러러 빌 수밖에 더 있겠는가? 산과 바다에 마귀가 숨어 있는 세상인데 양신(陽神 =하나님의 신)이 오고 음신(陰神=마귀의 신)이 물러가게 되니 조을사구(肇乙知=을을 지은 이치를 알아라)로다. 하늘의

불이 내려올 때 즉 천신(天神)이 하강(下降)할 때 선악이 분별되리니 자세히 알지라. 영생의 봄바람(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람)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도를 찾는 자들이 조을사구! 하늘의 궁궁을을(백십승) 정도령이 오셨도다. 이 나라 금수강산 앞길에 관한 예언 중에 사을(四乙)의 가운데서 삼위일체(삼신일체)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였느니라.

西方結東東方解 서방결원동방해 顯日見之修源旅 원일견지수원려 須從白兔靑林 수종백토청림 世上四覽誰可知 세상사람수가지 新天禱神天神指 기천도천신지 西氣東來獨覺士 서기동래독각사 一鷄四角邦無手 일계사각방무수 萬人苦待直八人 만인고대직팔인 西方庚辛四九金 서방경신사구금 聖神降臨金鳩島 성신강림금구조 東方甲乙三八木 동방갑을삼팔목

木兔再生保惠士 목토재생보혜사

서방에서 맺힌 원(冤)을 동방에서 풀게 될 터인데 이 날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수원나그네가 바로 그분이니라. 그 분을 만나려면 금운(백운)을 좇아오신 동방(토묘)의 청림도사에게 달려가야 하리라. 청림(靑林)은 계룡산(鷄龍山)과 같은 의미이며 81궁 정도령(72궁+81궁)을 말한다.

세상사람 어느 누가 그 분을 알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리라. 금운의 기운을 좇아 동방으로 오셔서 홀로 깨달은 선비이니라. 그 분이 정(鄭)=一鷄四角邦無手 일계사각

방(무수)도령이시요, 만인이 고대하던 진인(眞人=直八人직팔인)이니라. 서방경신사구금(西方庚辛四九金)이니 금운으로 오셨으며 금 비둘기를 강림하신 성신(聖神=하나님의 신)이시라. 동방갑을삼팔목(東方甲乙三八木)으로 온 목토(木兔=72궁 목운木運)가 거듭난 보혜사성신이니라. 참고로 진인(眞人=구세진인=구세주)이란 진아(眞我=하나님)를 찾는 사람이요 진인이 펴는 법(法)이 진법(眞法)이다. 따라서 진인이 구세주요 계룡산이요 삼신산이요 청림도사요 정도령 마릭불이다.\*

박명하/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b>승리신문</b>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마릭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a href="http://www.victor.or.kr">www.victor.or.kr</a>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52회

隱秘歌(一) 궁을론

兩白三豐名勝地 양백삼풍명승지 望遠耳聽心不安 망원이청심불안 時來運到細推究 시래운도세추구 縱橫一字分日月 종횡일자분일월 弓不在山弓不水 궁불재산궁불수 牛性在野四乙中 우성재야사을중 武陵桃源仙境地 무릉도원선경지 一片福州聖山地 일면복주성산지 鷄龍白石平砂間 계룡백석평사간 三十里局天藏處 삼십리국천장처 三神聖山何處地 삼신성산하처지 東海三神亦此地 동해삼신역차지

마귀를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양백兩白)지간에서 나온 백십승(白十勝)이 감로해인(甘露海印=이슬성신=삼풍해인)을 내리는 명승지(名勝地=십승지)에 있다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듣기만 하니 마음이 불안하구나. 때가 오고 천운(天運)이 이르렀으니 자세히 이치를 헤아려 궁구해 보이라. 십승지인(종횡일자縱橫一字=십+)이 오셨음이 분명하니라. 궁궁(弓弓=십승+勝)은 산(山)에도 없고 물에도 없으니 우성(牛性)은 들에 있으며(인위적인 꾸밈이 없고 천진하며 절대 순수하다) 사을(四乙=백십승白十勝)의 중앙에 거하시느니라.

복숭아 꽃 피는 무릉도원은 신선이 사는 곳이요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니라. 정도령이 계시는 곳은 소사(素砂=흰돌=白石)땅이요